광주·전남도 특목高 열풍

대입 내신 약화 따라…학원 특목고반 북적

광주·전남 3곳 올 경쟁률 5대1에 달할 듯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학생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특목고 열풍이 광주·전남에서도 거세다. 특목고의 입학 경쟁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들은 입학 정원을 늘리기도 했다.

특히 과학고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광주·전남의 특목고 수는 한정돼 있는데다 대학 입학 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의 특목고는 광주·전남과학고와 전남외국어고 등 3곳이다.

광주과학고의 경우 2005년 2대1, 2006년 3대1로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2007년 입시부터 60명이던 정원을 80명으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올해 2008년 입시에서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과학고도 2007년 69명 모집에 경쟁률 2.33대1로 치열하기는 마찬가지다.

특목고 반을 운영 중인 광주 ALCC 학원 정병욱 원장은 "광주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특목고는 한정돼 있어서 올해 경쟁률은 최소 5대1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스트과학전문학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이나 전남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가산점이 폐지돼 과학고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문의전화가 늘었고, 학생 수도 조금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남외국어고는 올해부터 입학 정원을 늘렸다. 영어·중국어·불어·독어반 등 4개 반 각 30명씩 120명이던 정원이 영어를 두 개 반으로 늘리면서 150명으로 조정됐다. 전남외국어고 관계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점도 학부모들이 외고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말했다.

상위권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신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점 ▲평균 대학 진학률이 높은 점 ▲2년 후 대학 조기진학이 가능한 점 ▲수행평가 등 대입 외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점 등이다.

하지만 수월한 대입만을 목표로 할 경우 이 같은 열풍으로 인해 관련분야 인재 양성 등 특목고의 원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광주과학고는 8일부터 15일까지 원서를 교부하고 15~17일(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전남과학고는 오는 22~25일까지, 전남외국어고는 25일부터 11월1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과학고 전형을 앞두고 광주시 동구 특목고 입시 학원생들이 막바지 수험준비에 열중이다. 최근 내신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들이 늘면서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가을산행 해 빨리지고 기온 급강하

등산객 조난 잇따라

지리산·화순서 조난사고

여벌 옷·손전등 준비해야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몰(日沒)이 빨라지고 일교차가 커져 산악 조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8시22분께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 대피소 부근에서 강모(32·전주시 완산구)씨 등 2명이 조난을 당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소방서 산악구조대의 도움으로 9일 새벽 3시께 하산했다.

강씨 등은 성삼재~노고단~반야봉 산행을 마치고 피아골 쪽으로 하산하던 중 날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등산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오후 6시31분께는 화순군 한천면 태악산~한천 자연휴양림 사이 호남 정맥에서 하산하던 정모(32·광주시 서구 화정동)씨가 길을 잃었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야간 산행장비와 여벌의 옷 등을 챙기지 않고 산행을 하다가 탈진,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低體溫症, hypothermia)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최근 조난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해가 하루 1~2분씩 짧아지는 등 9월에 비해 일몰 시각이 40여 분 빨라졌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초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악지역의 경우 평지보다 일몰 시각이 1시간 이상 빠를 뿐만 아니라, 기상상황의 변동이 심해 예상보다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을철에는 평소보다 1시간 가량 빨리 하산해야 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여벌의 옷과 우비·손전등·비상식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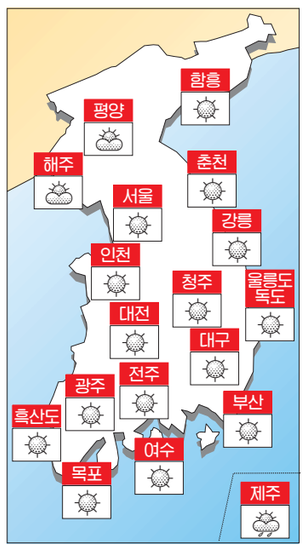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감기 조심

10월 10일 (음 8월 30일) ◇전국날씨

대륙고기압의 영향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 조금	11~24℃
목 포	구름 조금	12~23℃
여 수	구름 조금	17~22℃
완 도	구름 조금	13~24℃
구 례	구름 조금	12~25℃
해 남	구름 조금	12~24℃
장 흥	구름 조금	12~24℃
고 흥	구름 조금	12~24℃
순 천	구름 조금	15~24℃
영 광	구름 조금	10~25℃
진 도	구름 조금	12~24℃
전 주	구름 조금	9~24℃
남 원	구름 조금	9~25℃
흑산도	구름 조금	15~18℃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1:29 13:42 썰물 06:46 19:01
여 수 밀물 08:37 20:49 썰물 02:25 14:37

▲해뜸 06:34 ▲해짐 18:05 ▲달뜸 05:29 ▲달짐 17:2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날 씨						
최저/최고	12/23	12/22	11/21	10/21	9/20	9/21

성인 남성 흡연율 43.7%

여성은 3.7%…30대가 가장 많이 피워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9월 13~14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3.2%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흡연자수는 840만 여명으로 추산됐다.

성별로 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감소한 43.7%, 여성 흡연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한 3.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 29.5%, 20대 26.9%, 40대 23.7%, 50대 19.8%, 6대 12.3%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 흡연율은 블루칼라 47.8%, 자영업 36.3%, 농임어업 32.1%, 화이트칼라 26.6%, 학생 26.4%, 무직 26.1%, 가정주부 3.1% 등이었다.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1~20개비가 52.0%로 가장 많았고, 10개비 이하 32.9%, 21개비 이상 15.0% 등이었다.

여성은 10개 이하가 61.9%로 가장 많았고, 11~20개비 35.2%, 21개비 이상 2.9% 등이었다.

흡연기간은 11~20년이 33.0%로 가장 많았고, 6~10년 23.1%, 21~30년 15.9%, 5년 이하 15.4% 등의 순이었다.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이유로는 '건강이 나빠져서'가 65.3%, '주위의 권유' 8.5%, '경제적 이유' 7.1%, '지저분해서' 6.2%,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5.5%, '금연장소가 많아져서' 2.8% 등이었다.

/연합뉴스

포털 사이트서 밀입국 알선

카페·블로그 20여개…광고까지 게재

국내 주요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밀입국 알선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등 20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류위조 · 위장 결혼 · 월경 등을 통해 미국, 중국으로의 밀입국을 알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밀입국 알선 사이트인 A카페에는 '비자 및 제3국 입국 경험담' 코너를 마련해 놓고 멕시코 · 캐나다 경유 밀입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페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밀입국 비용과 관련해 1인당 6천 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를 공개했다.

한 인터넷 카페에는 3만~4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위장결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알선하고 관련 광고까지 게재했다. /연합뉴스

"로스쿨 총정원 이달중 확정"

교육부 차관보 "추가 인가 등도 결정"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을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들이 힘을 합쳐 2008년 1월까지는 예비 인가를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인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 주 중 로스쿨 총정원 협의를 끝내고 내주 중 국회에 보고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에는 총정원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 차관보는 "총정원을 정하면서 로스쿨 추가 인가 문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인가 대학을 첫해 얼마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지, 대학 수를 고정하고 인가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 갈지, 대학수를 더 늘려가야 할지 등 여러 정책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 시군구중 53%가 무변촌이어서 법률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방에서도 법학대학원이 설치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역균형을 고려토록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수 김민기씨 음반 재발매 금지訴

'아침이슬'의 작곡가이자 가수인 김민기〈사진〉씨가 자신의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신청서에서 "음악출판사인 P사가 1971년 음반 제작 당시 기획자로 참여했던 K씨로부터 음반 제작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음반을 재발매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K씨는 당시 연주자들의 섭외를 돕고 음반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수시모집 11일~17일 원서 접수

조선대학교는 11일부터 17일까지 2008학년도 신입생 수시 2-2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총 모집정원 5천284명의 38.4%인 2천33명을 선발하게 된다.

전형별로는 일반학생 전형이 1천868명, 특기자(미술·체육·무용) 전형 150명, 간호학과 남학생 전형 5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정원 외) 10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100% 인터넷(www.chosun.ac.kr)으로 이뤄지며 1단계 합격자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0-6666.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생 모집
"수강료 80~100% 환급"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503 분원 ☎ 671-0012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만성산업·조루·허리디스크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 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12월 15일 시험확정!!
'부동산대출중개사' 가뜬다!